

이광환 감독 “열악을 열정으로 바꿔 2라운드 가겠다”

〈기장여자야구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

〈4강〉



이광환 KBO 육성위원장(오른쪽)은 'LG 후원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2016 기장여자야구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돼 선수단을 이끈다. 왼쪽은 여자야구대표팀에 재능기부로 도움을 준 김용달 KBO 육성위원. 스포츠동아 DB

여자야구월드컵 12개국 중 11위 수준 직장 있는 선수에 소프트볼 선수까지 팀플레이 필요한데 훈련시간 모자라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이광환 KB O 육성위원장(68)을 가리켜 “사심 없이 야구를 사랑하는 어른”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나이를 먹어도 야구계에서 좋은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위원장은 대가를 구하지 않고, 돈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구를 위해 조용히 일한다”고 허 위원은 말했다.

실제 이 감독은 ‘자율야구’, ‘투수분업’을 KBO에 도입하며 한국시리즈 우승(1994년 LG)까지 경험한 스타감독이지만, 2008년 히어로즈 야구단 사령탑을 끌고로 더 이상 프로야구 감독, 국가대표 감독 같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

다. 그 대신 KBO 육성위원장, 한국여자야구연맹(WBAK) 고문, 서울대 야구부 감독 등을 맡아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뛰었다.

이런 이 감독이 9월3일부터 11일까지 부산시 기장군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리는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2016 기장여자야구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됐다. 그러나 영예보다 봉사하는 직위임에도 이 감독의 부담감은 상상 이상이다.

●소집 자체도 힘들지만…

여자야구대표팀은 이미 최종 엔트리 20명을 발표했다. 지난 20~21일에는 일본 여자야구리그 최강팀 아사히 트러스트를 초청해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평가전도 치렀다. 그러나 대표팀의 ‘완전체’ 전력은 요원하다. 이

감독은 “대표선수 전원의 얼굴을 본 것은 딱 하루”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연맹 소속 여자선수들은 직장이 있다. 소프트볼 선수들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 몸은 잘 움직이지만 야구와 톱이 다르다보니 주루 플레이가 안 된다. 견제 사가 많다. 팀플레이가 필요한데 훈련 시간이 모자라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감독부터 KBO 육성위원장 일을 하느라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 서울대학교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전 LG 2군 연습장에서 훈련을 시켰다. 이 감독은 “갑갑하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과 별개로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인 만큼 기대치는 높기 때문이다. “우리 전력이 참가국 12개 국 중에서 11위 수준이다. 역사도 짧다. 그래도 2라운드(4강)는 올라가야 되는데…”라면서 부담감과 함께 책임감을 나타냈다.

●마지막 봉사

대표팀은 쿠바, 베네수엘라, 파키스탄과 같은 조다. 파키스탄은 다소 약체로 평가되지만 쿠바, 베네수엘라 중 하나를 잡아야 2라운드에 진출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표팀 소집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상대팀 전력분석도 거의 안 된 실정이다. 직장인들이 쉬는 주말경기가 아닌 한, 대표팀의 베스트 전력 가동도 장담할 수 없다. 8월31일 기장에 선수들이 소집하지만 이때 전원이 모일 것 같지도 않다. 그 래도 이 감독은 “야구월드컵이 2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 우리는 4년 전부터 개최를 준비했다. 형편이 안 되지만 ‘여자 야구를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성적을 떠나 해보자’고 한 결과”라고 했다. 이 감독은 “마지막 봉사”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그 순수한 열정은 진짜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오지환, 나를 넘어 최고 유격수가 돼라”

■LG 유지현 코치의 응원

역대 LG 유격수 한 시즌 최다 16홈런 유코치 “지독하게 훈련…기쁘고 뿌듯”

청출어람이다.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 LG 오지환(26)의 얘기다.

오지환은 25일 고척 넥센전에서 시즌 16호 홈런을 터트리면서, 유지현(45) 현 LG 작전코치가 세운 역대 LG 유격수 한 시즌 최다 홈런기록을 갈아 치웠다. 유 코치는 한양대를 졸업한 뒤 1994년 LG에 입단해 공·수·주에서 맹활약하며 신인왕을 차지했다. 수비와 주루플레이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었지만,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신인이 잠실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LG에 입단해 무려 15홈런이나 때려내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주축을 받았다.

그 홈런 기록을 오지환이 22년 만에 넘어섰다. 이뿐만 아니다. 시즌 초반 부상 여파로 주축했지만 후반기에 타격이 면 타격, 수비면 수비,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상승세에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제자의 모습에 누구보다 흐뭇한 이가 유 코치다. 유



24일까지 역대 LG 유격수 한 시즌 최다홈런의 주인은 유지현 작전코치(오른쪽)였다. 이 기록을 뛰어넘은 이는 제자 오지환(왼쪽). 25일 고척 넥센전에서 16호 홈런을 터트리며 1994년 유 코치의 15홈런 기록을 뛰어넘었다. 유 코치는 “오지환이 내 기록을 깨워서 뿌듯하다”며 기뻐했다. 스포츠동아 DB

코치는 “(팀 내 유격수 최다홈런이) 큰 기록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지환이가 내 기록을 깨워서 뿌듯하다”며 “수비코치가 되고 처음 맡았던 제자였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오)지환이의 선전이 더 기쁘다”고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다.

유 코치의 말처럼 오지환은 몇 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유격수’로 성장했다. 물론 한때는 경기를 지배하는 실책을 한다고 해서 ‘오지배’라는 유쾌하

지 않은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이를 다시 해석하면 팀에 있어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았다는 말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유 코치는 오지환을 누구보다 혹독하게 단련시켰다. ‘LG를 대표하는 역대 유격수’ 계보를 말하자면 김재박(62) 현 KBO경기운영위원과 유 코치가 떠오르지만, 여기에 오지환이 이름을 오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유 코치는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다”며 미소 짓고는 “일례로 수비훈련을 할 때 절대 백핸드로 공을 잡지 못하게 했다. 타구는 손이 아닌 발로 잡아야 하는 건데 (오)지환이는 발이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었다. 상체가 아닌 발이 먼저 움직여서 공을 잡을 수 있도록,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더니 그 모습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다. 힘들었을 텐데 (오)지환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따라와 줬다”고 말했다. 이어 “올 시즌을 끝으로 군 입대를 해야 하는 게 아쉽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나를 뛰어넘어 KBO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하는 선수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정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스위치히터 국해성, 100점 만점에 90점”

■장원진 코치가 본 국해성

7번타순에서 제몫 해내 높은 점수 장코치 “아직 스몰일곱…미래 밝아”

타석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서 타격이 가능한 스위치히터는 남들보다 집이 2배다. 배터박스 양쪽에 들어서는 만큼 우귀 헬멧과 좌귀 헬멧 하나씩을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좌우에 따른 배트도 무게와 스타일이 각각 달라 여러 개를 준비해야 한다.

두산 장원진(47) 타격코치는 현역 시절 이 같은 과정을 겪으며 스위치히터로서 이름을 날렸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박종호 LG 수비코치와 함께 한국프로야구의 스위치히터를 대표했던 장 코치는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서 후배들을 길러내고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이는 단연 국해성(27·사진)이다.

국해성은 현재 1군 무대를 누비는 유일한 스위치히터다. 우투양타 외야수인 그는 시즌 중반까지 부침을 겪다 후반기 들어 7번타자를 꿰차고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장 코치의 시선은 남다르다. 타석에서 본인과 같



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 아직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다는 게 장 코치의 설명이다.

우선 장 코치는 국해성이 오랫동안 양타를 갖고 닦은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자신은 프로에 와서 스위치히터로 전향한 반면, 국해성은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양쪽 타석을 모두 쳤기 때문에 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오른손과 왼손 구분 없이 힘 있는 스윙이 가능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물론 채워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 약점으로 꼽히는 정확성을 앞으로 끌어올려야 1군에서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장 코치는 조언했다. 20년 후배를 향한 충고는 계속됐다. 장

코치는 “스위치히터는 연습량이 결국 중요하다. 남들은 한 타석에서 연습할 때, 우리는 양쪽에서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체로 나가서도 어느 유형의 투수를 만날지 모르니 상대방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코치가 말한 대로 스위치히터는 상대방이 오른손투수이든 왼손투수이든 교체 없이 타석에 들어설 수 있다. 장 코치도 이를 스위치히터만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결국 타자 본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팀에서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장 코치가 현재 시점에서 매진 국해성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이 같은 질문에 장 코치는 망설임 없이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내렸다. 7번타순에서 제몫을 해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국해성이 7번에서 상하위 타선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있는 점에 후한 평가가 따랐다.

앞으로 국해성의 성장 가능성을 묻자 장 코치는 딱 한 마디로 이를 대신했다. “저는 서른 넘어서 빛을 봤는데, 해성이는 아직 스몰일곱입니다. 저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광주 | 고봉준 기자 shoutout@donga.com



미스코리아의 시구시타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KIA전에 앞서 ‘미스코리아 선’ 신아라와 ‘미스코리아 미’ 이채영(왼쪽부터)이 시구를 마친 뒤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KIA 포수 이흥균.

‘윤규진의 책임감’ 공 하나에 일희일비 안한다

선발투수 전환 초기 시행착오 겪어 보직에 맞는 이닝소화·제구력 강조

지난해까지 윤규진(32·사진)은 한화의 필승계투요원으로 통했다. 시속 150km의 빠른 공과 예리하게 꺾이는 포크볼은 짧은 이닝을 틀어막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지난해 막판 어깨뼈를 깎아 올 시즌 중반에야 합류할 것으로 보였지만, 4월17일 대전 LG전부터 1군 마운드에 섰다. 5월21일 수원 kt전부터는 아예 선발투수라는 새 옷으로 갈아 입었다. 2009년 6월21일 목동 히어로즈전 이후 2526일 만에 선발등판한 뒤부터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규진은 올 시즌 선발등판한 15경기에서 4승(4패)을 따냈지만, 방어율은 7.44(65.1이닝 54자책점)로 좋지 않다. 그러나 ‘퀵후크(3실점 이내의 선발투수)를 6회 이전에도 교체하는 것’이 일상인 데다 원투펀치도 마땅치 않은 선발진의 사정으론 미뤄봤을 때 윤규진의 역할은 매우 크다. 7경기에서 5이닝 이상 소화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계투진의 부담을 줄여준 것도 빠르게는 안 되는 요소다. 26일 대전 NC전에서는 5.1이닝 7안타(1홈런) 4볼넷 6삼진 4실점(3자책점)을 기록하며 6승(5패)째를 챙겼다. 직구 최고구속은 146km를 찍었다. 복귀 초기와 견줘 큰 폭으로 올랐다. 또 올 시즌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투구수(116개)를 소화한 부분도 돋보였다. 윤규진은 “(권)혁이 형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니 내가 더 책임감을 갖고 던져야 했다. 오히려 던지면 던질수록 힘이 불덜러”

고 돌아왔다.

볼펜이 익숙했던 윤규진은 선발 전환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었다. 윤규진은 “1구, 1안타, 1실점에 너무 예민했다”며 “올해 선발투수로 보직을 바꾼 직후에는 계투로 나설 때와 똑같이 받아들이고” 말했다. 확실한 구종으로 짧은 이닝을 틀어막아야 하는 계투와 페이스를 조절하며 긴 이닝을 책임져야 하는 선발투수는 다르다. 계투의 1실점은 경기 흐름이 바뀌는 요소이나, 선발투수의 초반 1~2실점은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지 않는다. 윤규진은 “선발투수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무척 예민하게 받아들이었다. 지금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이다”고 밝혔다.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구속보다는 선발투수 본연의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한다. 윤규진은 “지금은 구속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지금은 구속보다 길게 던지는 것과 제구력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donga.com